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17항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굳이 ② 붙이다 ③ 밭으로 ④ 가을걷이

2.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 접미사가 붙어서 어근의 품사가 바뀐 단어

- ① 지우개 ② 돌다리 ③ 풋사과 ④ 나뭇잎

3. 문장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하는 것은?

- ① 우리는 각자의 꿈을 결코 이루어 낼 거야.
- ② 비록 힘들지라도 부디 용기를 잃지 말아라.
- ③ 너희는 이번 경기에서 절대로 승리해야 해.
- ④ 나는 오늘 학교 축제에서 노래와 춤을 추었어.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 깊은 금덥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뽕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나)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魚物)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4. (가), (나)의 공통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적 어조로 표현되었다.
- ②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었다.
- ③ 시적 대상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다.
- ④ 시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났다.

5. (가)에서 ‘여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 ① 어린 딸의 죽음 ② 금덥판에서의 행상
- ③ 산(山)절을 둘러보는 나 ④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

6.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는 팔다 남은 생선을 보며 안타까워하는군.
- ② 오누이가 차가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군.
- ③ 오누이는 다정하게 별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고 있군.
- ④ 어머니는 자식 걱정을 하며 늦은 밤길을 걸어 왔겠군.

7. ㉠~㉣ 중 후각적 심상으로 표현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허생이 부자 변씨를 찾아가 일 만 냥을 빌려달라고 하니, 변씨는 흔쾌히 돈을 빌려준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씨 집의 자체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씨의 술이 빠져 너털너털하고, 갓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 아침에, ㉠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굴,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쏟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 박지원, 「허생전」 -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허생과 변씨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② 허생은 지배 계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 ③ 허생에 대한 심리 묘사가 두드러진다.
- ④ 허생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9.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아닌 것은?

- ① 해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② 과일은 제사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다.
- ③ 안성은 많은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다.
- ④ 제주도에서는 나는 말총으로 망건을 만들어 썼다.

10. ㉠~㉣ 중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적한 부분은?

- ① ㉠ ② ㉡ ③ ㉢ ④ ㉣

11. 변씨가 허생을 판단한 기준과 관계 깊은 속담은?

- ① 개밥에 도토리 ② 빛 좋은 개살구
- ③ 뚝배기보다 장맛 ④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익훈·이:세 가·짓:변·이오:해·로운·이:세 가·짓:변·이니 直·덕훈·이:를:변·호·며:신·실훈·이:를:변·호·며:들:온·것·한·이:를:변·호·면:유·익훈·고:거·동·만·니·근·이:를:변·호·며:아:당·호·기·잘·호·는·이:를:변·호·며 ㉠:말·습·만·니·근·이:를:변·호·면·해·로·온·이·라.

<현대어 풀이> 유익한 벼이 셋이고, 해로운 벼이 셋이니, 정직한 이를 베풀며, 신실한 이를 베풀며, 건문이 많은 이를 베풀면 유익하고, 행동만 익은 이를 베풀며, 아침하기를 잘하는 이를 베풀며, 말만 익은 이를 베풀면 해로우니라.

*니·근·이:익숙한 이.

- 「소학 언해(小學諺解)」 -

12. 윗글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내었다.
- ②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 ③ 끊어적기 방식만 사용되고 있다.
- ④ 현재 사용되지 않는 모음이 사용되었다.

13. 윗글에 제시된 유익한 벼이 아닌 것은?

- ① 마음이 곧고 바른 친구
- ② 착실하여 믿음을 주는 친구
- ③ 들은 것이 많아 배울 것이 있는 친구
- ④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친구

14. ㉠에게 조언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해야 해.
- ②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해.
- ③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해.
-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은 삼가야 해.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덩덤이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꽤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줌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댔다. 사날씩이나 건승 ‘꿈, 꿈.’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 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눈을 혼자 삶어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썹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 오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쥘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르치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 구 그러니, 온!”

하고 남 낱짝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댕돌에다 메꿔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꺾꺾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작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스며,
 “㉡ 난 갈 테야유. 그 동안 사경 쳐 내슈, 뉘.”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그러면 얼쩡 성렐 해 줘야 안 하지유. ㉢ 밤낮 부러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뺨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러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 김유정, 「봄봄」 -

15. ‘나’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악하고 교활하다. ② 어수룩하고 우둔하다.
 ③ 차분하고 신중하다. ④ 고분고분하고 사교적이다.

16. 윗글에서 ‘장인’이 혼례를 시키지 않는 표면적 이유는?

- ① ‘나’가 가난하기 때문에
 ② 점순이가 미처 크지 않아서
 ③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④ ‘나’를 오래도록 머슴으로 부리려고

17. 윗글을 <보기>와 같이 각색했을 때,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 : (벌떡 일어나) 난 갈 테야유. 그 동안 사경 쳐 내슈.
 장인: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나 :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얼쩡 성렐 해 줘야지유.
 해 준다, 해준다면서 밤낮 부러만 먹구…….
 장인: (능글맞게 웃으며)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나 : (㉠) 그런 소릴 하려면 당장 구장님한테 가지유.
 장인: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며)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 ① 기지개를 켜며 ② 머리를 긁적거리며
 ③ 장인의 소매를 잡아끌며 ④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18. ㉠~㉣ 중 자신의 속뜻과 다르게 말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9.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물로켓 만드는 방법

- ㄱ. 물로켓의 본체는 두 개의 페트병을 잘라서 만들음.
 ㄴ. 페트병의 거칠은 면을 다듬어 테이프로 고정함.
 ㄷ. 상단에 고깔을 씌우고, 하단에 날개를 부쳐 고정함.
 ㄹ. 시험 발사하여 목표물에 정확히 날라가는 것을 확인함.

- ① 만들음 → 만들 ② 거칠은 → 거친
 ③ 부쳐 → 붙여 ④ 날라가는 → 날아가는

20. ‘수질 보호’에 대한 글쓰기를 준비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I. 서론
 - 오염된 물로 인한 사고 발생
 - 수질 보호의 필요성
- II. 본론
 1. 수질 오염의 원인과 실태
 - 수질 오염의 원인
 - 수질 오염의 실태
 2.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
 - 가정 차원: (㉠)
 - 정부 차원: 오염 물질 방류 단속, 관련 사업장 감독
- III. 결론
 - 수질 보호를 위한 관심과 실천의 필요성 강조

- ① 폐식용유 재활용하기 ② 빨랫감 모아 세탁하기
 ③ 주방 세제 사용량 줄이기 ④ 오염 물질 관련 법규 정비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한국에서는 개울가 어디를 가나 평평한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하는 여자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더러운 옷을 물에 담갔다가 건져 내 쥐어짠 다음,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납작한 방망이로 두드린다. 이에 앞서 나뭇재로 만든 잣물에 빨래를 흠뻑 적시기도 한다. ㉡ 빨래가 끝나면 홍두깨에 빨래를 감아 놓고 곤봉 모양의 방망이로 얼마 동안 짧고 빠르게 홍두깨질을 하고, 이어서 햇볕이 쨍쨍 비칠 때 널어서 말린 다음, 쌀로 만든 풀을 살짝 먹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흰색의 흰 무명 천도 희부연 공단처럼 눈부시게 하얀 색을 띠는데, 그 흰 빛깔을 보면서 나는 항상 산상에서 거룩하게 변모한 예수의 광채나는 옷을 두고 “그 누구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라고 말한 마가복음서의 구절(9장 3절)을 상기하게 된다. 이런 흰 옷, 특히 겨울에 입는 흰 솜옷 때문에 여자들은 아주 힘들고 끊임없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두루마기는 빨래를 한 다음 매번 뜯었다가 다시 꿰매야 하는데, 긴 술기 중 어떤 것은 풀로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바느질을 해야 한다.

한국의 농촌 여성들은 이 밖에도 온 가족의 옷을 직접 만들고, 온갖 음식을 만들고, 무거운 공기와 절구를 사용하여 벼를 찧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에 가며, 물을 길어 오고, 먼 거리에 있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실을 갖고 베를 짠다. 게다가 이들은 예외 없이 아이를 많이 낳는데,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인다. ㉣ 농촌 여성들은 삶의 즐거움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고된 가사를 며느리에게 물려줄 때까지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은 서른에 벌써 쉰 살은 먹어 보이고, 마흔 살이 되면 이가 거의 빠진다. 몸단장을 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아주 이른 나이에 잊어버리고 만다.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 -

21.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에서는 빨래할 때 잣물이 사용되었다.
- ② 겨울 솜옷은 다른 옷보다 쉽게 세탁할 수 있었다.
- ③ 농촌 여성들은 집안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해야 했다.
- ④ 농촌 여성들은 자신의 몸단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22. 한국인의 모습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이 드러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활자로 된 책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면, 그것을 읽고 그 개념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만큼 지적 긴장과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비경제적이다. 그러나 전통적

매체에 의한 정보 전달에 치르는 대가는 충분히 보상된다. 책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 기호의 의미는 영상 매체를 구성하는 기호인 이미지보다 정확할 수 있으며, 영상 매체의 기호들이 언제나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구속되어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파악을 요청하는 데 반해, 하나의 책에 기록된 기호들은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간의 제약 없이 반복적이면서도 반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깊은 차원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책의 기호적 의미와 그러한 의미에 의한 정보 전달 기능은 그 성격상 어떤 상황에서도 영상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 기능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영상 매체가 지배하는 문명은 피상적이고, 피상적 문명의 의미는 공허하며, 공허한 문명은 곧 문명의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깊은 의미를 지닌 문명과, 인간적으로 보다 충족된 삶을 위해서 영상 매체의 완전한 지배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영상 매체가 발달되더라도 의미 있는 문명이 살아 있는 한 인쇄 매체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명과 삶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책의 기능을 의식하고, 보다 나은 책을 더 많이 창조하고, 책에 담긴 풍요롭고 깊은 가치를 발견하고 음미하는 습관을 잊지 않는 노력이 한결 더 요청된다.

- 박이문, 『영상 매체 시대의 책』 -

23. 위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이다.
- ② 개인의 감정과 정서가 운율로 압축된 글이다.
- ③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 ④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다.

24. 윗글에 나타난 ‘책의 가치’로 알맞은 것은?

- ①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② 반복적이고 반성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 ③ 책의 기호가 영상 매체의 기호보다 즉각적이다.
- ④ 짧은 시간에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25. 윗글에서 사용된 주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 ②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④ 두 대상의 차이점을 견주어 대조하고 있다.

※ 확인사항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